

朝鮮後期 養士齋 建築의 特性에 관한 연구

-嶺·湖南地域을 中心으로-

조영화

(공학박사 대경대학 조교수)

1. 序論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향교의 교육적 기능이 쇠퇴하고 서원의 남설로 인한 폐단으로 향교와 서원이 지방에서 지방민을 위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자, 文治에 뜻을 둔 지방관들은 학교부흥을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기구를 모색하게 되면서 養士齋라는 새로운 교육의 場을 마련하였다. 양사재가 조선 후기 이래 三南지방(충청·전라·경상도)의 대부분 郡縣에서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國史學과 教育史에서조차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사재가 국사학계에 심도있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의 일이며 건축역사학계에서는 거의 취급이 되지 않고 있었을 뿐더러¹⁾ 양사재를 향교의 한 부속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사재는 각 군현에 존재하던 齋, 精舍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재나 정사는 개인의 書齋나 書堂, 別墅 등의 기능을 지녔으며, 양사재는 郡縣 전체의 양반자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향교나 서원과 유사한 교육기관이었다. 양사재의 설립은 사마재와 함께 조선 후기 향교의 교육기능 상실이라는 현실속에서 그 대안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전국 각지에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양사재가 조선 후기 광범위하게 설립된

교육기구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점과 건축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양사재의 건축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건립상황을 살펴보고 건립위치에 따른 시대적·지역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존하는 양사재들은 모두 향교 영역 내에 건립되어 향교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향교건축의 배치수법은 호남과 영남에서 뚜렷한 지역성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규명이 된 바, 양사재 건축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또한 양사재의 평면구성과 지붕양식 등 외형을 분석하여 향교건축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양사재 건축을 건축역사학계에 소개하여 건축적 위상과 의미를 밝혀내는데 본 논문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양사재가 조선 후기 향교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건축되었으며, 향교건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것이 향교건축의 조선 후기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 대상이 된 지역은 영남과 호남지역으로, 이 두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곳이어서 지역성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다. 연구방법은 현존하

1) 拙稿, “郷校建築의 樓에 관한 研究”(영남대박사논문, 1994)에서 양사재의 개략적인 언급이 있었다.

는 건물은 거의 호남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 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성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에서는 양사재와 관련된 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있으며 국사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존 건축물을 병행 조사함으로써 양사재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양사재란 용어는 지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齋로는 양사재가, 堂으로는 흥학당이 가장 많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을 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양사재로 하였다. 이후부터는 본고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사재로 통칭하기로 한다.

2. 養士齋의 設立背景 및 機構

2-1. 養士齋의 設立 背景과 設立 主體

(1) 設立 背景

양사재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각 군현에서 세워지고 있었던 것은 나라의 교육정책과 군현의 향교 실태와 관련이 있다.²⁾

우선 교육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나라에서는 초기이래 쇠퇴해 온 향교교육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관의 파견이었다. 조선 초기처럼 각 향교에 교수, 훈도 등의 파견을 모색하였고, 숙종 6년에는 提督官을 다시 파견하여 巡幸勸學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중앙에서 교관을 파견하는 興學策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양반유생들의 자치적 활동을 유도하기도 하고 군현 자체적으로 교육중흥을 하도록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선 나타난 것이 儒生 居接을 위한 監營의 양사재였다. 감영의 양사재로는 숙종대에 건립한 함흥의 養士廳이나 전주의 希願堂, 경종대에 건립한 대구의 樂育齋 등이 있는데 都會에서 선발된 유생들을 거점시켰다.

都會 유생이나 과거 응시자의 거점을 위한 장소로 양사재를 설립하였다면 각 고을에 있는 학교기관, 곧 향교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 1. 양사재의 명칭

명칭		해당 지역
양사재	영남	장기, 대구, 함안, 김해, 웅천, 경산
	호남	무장, 순천, 부안, 고창, 고비, 영암, 장수, 정읍, 흥덕, 무안, 장성, 해남, 곡성, 화순, 함평, 능주, 보성, 옥과, 남평, 창평, 담양, 지도, 진도, 옥구, 무주, 나주, 영광
흥학재	영남	의성, 칠원, 고성, 진해, 함양
	호남	구례, 광양
흥학당	영남	지례, 거창, 의령, 합천, 삼가, 산청
	호남	용안
육영재	영남	경주, 창원, 밀양, 하양,
	호남	광주
양사당	영남	김산, 양사당
여택재	영남	군위
득영재	영남	언양
향숙	영남	의흥
교흥재	영남	초계
양학당	영남	통영
강학당	영남	양산
양현청	영남	성주
양사청	영남	청하, 영양
양현당	영남	선산
낙일재	영남	청송
낙육재	영남	진주
장수재	호남	태인
난심재	호남	함열
군자당	호남	임실
정안당	호남	고산
사교재	호남	순창

그런데 양사재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고을의 학교실태를 ‘無敎養之所’, ‘無肄業之所’라 하여 조선 후기의 향교가 거의 교육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향교가 비록 교육기능을 상실한 지경에 놓여 있었다더라도 향교의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양사재와 같은 별도의 교육시설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당시 수령이나 유림들이 향교를 교육을 위한 기구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柳壽垣 같은 이는 校生은 守直을 하고 양반유생은 校任으로 제례만을 행하고 있으니 향교는 학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저 공자의 사당에 불과하다³⁾고 지적하였다. 유림들도 향교의 존속 의미를 문묘에서 구할 정도였다. 따라서 지방관의

2) 尹熙勉, “양사재의 설립과 운영실태”,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6

입장에서 볼 때 나라의 흥학책, 권학책을 실행함에 있어 교육기능의 회복이 어렵다고 본 향교를 대신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유생들의 과거준비를 위한 양사재를 설립하는데 앞장을 서거나 도움을 주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을 양반들도 양사재 설립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자제들의 과거준비를 위한 거점장소의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며, 또한 그 이면에는 양사재의 교육활동과 건립과 운영에 간여함으로써 향촌내에서 양반의 지위를 강화하여 綱常倫理와 신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었다.

조선 중기부터 설립되는 양사재는 영조, 정조대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었다. 영조, 정조대에도 향교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官學振興策을 적극 추진하였다. ‘勤學節目’을 거듭하여 반포하고 面里制와 교육체계를 결합시켜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활동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양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관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흥학책은 부분적인 성과만을 거둘 뿐이었다. 더구나 전기 이래로 유명무실해진 향교의 교육기능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려고 나타난 양사재는 거의 모든 군현으로 확대되어 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사재가 설립되어 ‘士風丕變 文才蔚興’⁴⁾하거나 대소과의 급제자가 거듭 배출되고 있다⁵⁾는 등 양사재의 설립효과가 큼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養士齋는 列邑의 通規”라는 지적처럼 거의 모든 고을에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양사재는 지방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여, 養士齋·興學齋·養賢齋·麗澤齋·得英齋·教學齋·興學堂·養士堂·養士廳·鄉塾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齋로는 양사재가, 堂으로는 흥학당이 가장 많다. 그런데 창건 때의 이름이 그대로 유지된 지역이 태반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관이 새로 부임해서 그 명칭을 바꾼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새로 부임한 지방관이 기존의 이름을 개칭한 것은 양사나 흥학의 분위기를 쇄신시켜 보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 생각된다.⁶⁾ 1886년 국가가 반포한 ‘官學院創設節目’에 의하면 이러한 다양한 이름을 조정에서

는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양사재’로 하였다⁷⁾.

이렇게 설립된 양사재는 향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一郡一齋로 존재하였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거창에서는 양현재와 흥학당이 병존하였던 것 같고, 옥파에서는 8세에서 17세까지 동몽들의 교육기관인 양몽재와 양사재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으며, 경산에서는 1805년 이전에 관립 양사소로서의 상덕사와 사립의 정양재가 병존⁸⁾하고 있었다. 이것은 양사재가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되고 운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촌사회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양한 양사소의 존재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⁹⁾

양사재에 대한 인식은 향교와 마찬가지로 ‘學宮’¹⁰⁾이나 ‘校宮’¹¹⁾으로 인식하기도 하였고, 향교의 부속기구로서 이해¹²⁾하기도 하였으며 양사재를 향교를 대신하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식하였다.

“太學生은 향교생에서 연유하는데 鄉學에 오르는 것은 셋이 있다. 하나는 校齋로 齋生이 入直하고, 둘은 養士齋로 齋生이 隸業하고, 셋은 司馬齋로 태학생이 오른다. 우리 고을의 세 향학은 한 학교인 것이다.”¹³⁾고 하여 향교, 양사재, 사마재를 하나의 학교로 연결시키고 있다.

(2) 設立主體

양사재를 설립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수령과 지방 양반들로 각각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수령이 건립하는 경우는 수령이 지켜야 할 ‘首領七事’의 하나인 ‘興學校’의 임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鄉儒들의 지원을 통하여 향촌통치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長鬢, 軍威, 山淸, 扶安의 양사재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任實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수령이 증진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지방 유림들에 의해서 건립되는 경우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기존의 신분질서가 급격히 중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유들은 자신의 지위확대

3) 「迂書」, 第2, 論學校

4) 「湖南邑誌」, 「光陽縣邑誌」 學校條

5) 「嶺南邑誌」, 「昌原府邑誌」 樓亭條

6) 姜大放, “韓國의 鄉社研究”, 경성대 출판부, 1992. p186

7) 「官學院創設節目」, 彥陽鄉校, 1881

8) 경산의 민간과 관의 양사소는 1805년 수령에 의해 하나의 양사재로 통합되었다.

9) 정진영, “조선후기 양사재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85

10) 「養士廳節目」, 영양향교

11) 「校宮置廳學錢記」(의령향교, 1884)에 의하면 “吾州之學有二校宮 所以尊先聖也 堂日興學…”

12) “大邱府邑誌”, 「嶺南邑誌」, 學校條

13) 「고창향교지」, 권2, 司馬齋設齋案

과 신분보존을 위해서는 과거를 통한 出仕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科業장소의 확보에 우선적으로 주력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적으로 설립된 양사기구에서의 출입은 중앙정부와 유대가 결여된 지방가문을 지방양반으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신분을 유지하는데 증빙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향유들은 양사재의 설립·증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운영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⁴⁾

海南의 양사재는 대흥사에서 거집하던 해남 유생들이 순조 2년에 돈을 모아 양사재를 설립하였으며, 慶山에서도 관립의 양사재와는 별도로 사립의 정양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양사재는 수령이나 양반들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보다는 서로 힘을 합쳐 설립한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보여진다. 수령이 고을의 다스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양반들의 협조와 자문을 얻어야 했고, 양반들의 활동도 수령의 협조와 목인이 있어야 원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령의 관심, 경제적 배려와 협조, 양반들의 주관과 운영이 합쳐져 양사재가 설립되고 이름 그대로 養士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이다. 咸平, 高敞, 光陽, 昌原의 양사재가 여기에 속한다.

2-2. 設立時期

조선전기에는 없었던 양사재가 조선후기의 거의 모든 고을에 세워지고 있었다.

양사재가 언제부터 건립이 시작되었는지는 기존 사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기 발표된 연구와 각 읍지와 향교지 및 기문에 나타난 자료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다.

양사재는 전국 각지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의 모태가 된 것은 함경도의 함흥지역에서 道 단위의 養士機構인 ‘長道會’를 1460년대 후반에 설립하였던 것이 시초로 보여지며¹⁵⁾ 그 이후 평안도의 平壤府(1507)와 郭山郡(연대미상)에 장도회를 설치하였다. 함경도 감사로 부임한 李光夏는 장도회가 재정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 함경도 북쪽 10주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독립기구인 양사청을 1695년 병영의

소재지인 鏡城府에 설치하고, 1697년에는 남쪽 13주 유생의 거집을 위한 양사청을 함흥부에 별도의 재산을 확보하여 창설하였다. 후에 이 지역에서는 도 단위가 아닌 읍 단위기구로 養士廳이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기구들은 후에 양사재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함경도지방에는 장도회의 맥을 이어 양사청이란 별도의 기구가 설립되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후반까지 도 단위의 양사기구가 존재한 반면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장도회도 함경도 지방보다 늦게 설립되었고 양사청은 설립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북도(함경도·황해도·평안도)지방에는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각 읍 단위로 양사재가 설립되어 운영된 것이 일반화된 것 같다.¹⁶⁾

영·호남에서 양사재의 설치시기는 조선 중기 이후 ‘進學之士’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고, 별도로 田土를 마련하여 鄉里의 우수한 자제를 擇定, 居接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고성 지역의 흥학재는 선조조의 최균이라는 사람이 건립을 하였는데 최균은 임란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사람으로 흥학재는 이 시기를 전후해서 건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주의 양사재는 임란때 소실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592년 이전에 이미 양사재가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라도 지역에서는 창평현의 경우 1552년에 諸生들이 남북 양쪽에 學求堂을 건립하여 1566년까지 課業을 계속하였으며, 광양군에서도 임란 이전에 흥학재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이로 보아 이미 임란 이전에 영·호남지역에서도 양사재의 건립이 시작되었으며, 17세기에 서서히 설치가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에 이른 때는 18세기 이후로 파악된다. 그 후 19세기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양사재가 설립되고 조사 가능한 기록으로는 전남 智島에서 양사재가 1903년에 마지막으로 건립된다.

영·호남지방의 경우 양사재는 대체로 18세기 이후 설립되었다고 보여진다. 경상도 창원향교의 육영재기에 의하면 “돌이켜 지금 영남의 큰고을 이름난 읍을 두루 보면 선비를 양성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장소가 곳곳에 보이는데, 우리 고을에는 이러한 재의 창건이 이제야 이루게 되었으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으니”라 하였고, 전라도 해남에서는 “향교가 있는 360여 곳에 양사재가 설립되어 있으나 해남만 오직 양사재가 없으므로 이를 설립

14) 강대민, 앞 논문, p32

15) 『續修咸山誌通記』에 의하면 “成化 丁亥(1467)에 감사 李繼孫이 咸興鄕校에 처음으로 長道會를 설치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 이계손이 함경도 감사로 부임한 것은 1469년 이므로 이 기록은 誤記인 것 같다.

16) 강대민, 앞 논문, p26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고창에서도 “우리나라의 列邑에 모두 養士之所가 있는데 이곳만 빠져있다.”고 하였다. 고창에 양사재가 건립된 것은 1795년이고 해남은 1802년이며, 창원의 육영재가 창설된 것이 1803년인데,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이전에 영·호남지방에는 대체로 양사재가 설립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실제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양사재들이 1700년대에 많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사재가 18세기 이후 많이 설립된 이유는 기존의 향촌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서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원은 그 설립초기에는 향교를 압도할 정도로 발전추세에 있었지만 17세기 중·후반부터 남설되어 家門中心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교육적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文治에 뜻을 둔 지방관들은 새로운 교육기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양사재의 건립은 대체로 지방관의 주도하에 유림들과의 합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는 지방관의 경제적 배려가 많았다. 또한 영·정조대는 文運이 부흥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한정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임란이후 창설되기 시작한 양사재가 이 때에 이르러 창설 또는 복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상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양사재의 설립은 주로 임·병 양란 이후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양사재의 재력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고, 문운의 부흥에 힘입어 자제들의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향촌사회의 구조변화와 수령권의 강화라는 상황변화도 양사재의 설립을 촉진시켜 주었던 것이다.¹⁷⁾

2-3. 養士齋의 機構

(1) 構成員의 名稱 및 數

양사재는 향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향교와는 별도의 임원과 경제기반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양사재는 일반적으로 齋任과 齋生으로 이루어졌다. 재임은 통상 都右司 혹은 訓長 1인, 掌議 1~2인, 色掌 1~2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표 2. 양사재의 건립시기

건립시기	해당 지역	
16세기	영남	성주(임란전), 고성
	호남	창평(1552), 광양(임란전)
17세기	영남	밀양(1646), 양산(1645~50 경), 경산상덕사(1668)
	호남	화순(1663), 무안(1689이전), 구례(1690), 광주(1698), 남평(1698~1702)
18세기	영남	장기(1707), 김산(1709), 영양(1724), 통영(1725), 거창(1733), 지례(1738), 경주(1744), 군위(1753), 의흥(1753), 대구(1766), 청송(1785), 함안(1788), 의령(1797), 경산 정양재(영조년간:1725~1776)
	호남	담양(1715), 진도(1718), 능주(1719), 화순(1723), 함평(1700년대 중반), 옥과(1778), 곡성(1791), 고창(1795)
19세기	영남	김해(1800), 창원(1803), 하양(1823), 진주(1896)
	호남	해남(1802), 부안(1848), 옥구(1872)
20세기	영남	연양(1900)
	호남	지도(1903)
기타	영남	
	호남	정읍(1740이전), 운봉(1780이전), 고비(1794중건), 광양(1784재건)
미상	영남	웅천, 초계, 안동, 선산, 합천 삼가, 진해, 함양
	호남	무장, 순천, 고비, 영암, 용안, 장수, 정읍, 흥덕, 임실, 장성, 태인, 고산, 무주, 나주, 영광

재임의 명칭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有司, 講長, 訓長, 掌議, 直月, 色掌 등의 이름이 있으며 이들은 양사재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 같다. 재장 또는 훈장을 首任으로, 장의, 색장을 次任으로 하였으며, 인원은 2~4명 정도였다. 수임은 재생의 거점에 교육을 담당하고, 차임은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던 듯 싶다. 재임의 임기는 1년이었으며, 선출은 권점, 자대, 차출 등 고을마다 형편에 맞게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재임에 선출되는 사람들은 양반사족으로 향교 교임처럼 고을에서 문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군현에 따라서는 재장을 훈장·도유사라 하고 장의를 전유사·유사라고 하는 등 재임의 명칭도

17) 林元錫, “조선후기 양사재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p30

다르고, 인원도 달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해남향교의 양사재를 보면 재임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해남·무장·함평·정읍 등지에서는 대략 2~5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재임들의 임무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해남향교의 예를 보면 훈장은 나이가 많고 학덕이 높은 사람을 천거하여 재생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장의는 재생의 대표자인 재장의 역할을, 색장은 양사재 내의 여러 업무를 맡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또한 執綱은 接員 중에서 公議를 좇아 택정하였으며, 이들은 罷接시 교체하는데 만일 執綱에게 잘못이 있으면 接中에서 조사하여 논벌하였다.¹⁸⁾

또한 함평향교에서는 別有司가 있는데 그 임무는 秋收打租때에 供饋함에 책임을 담당하였으며, 保米를 收捧할 때에는 매번 행사 시에 때가 지남이 없도록 하였다.¹⁹⁾

거창은 양현재를 창건할 때에 입격한 2명의 유사를 두되 그 중 도유사가 재를 대표하며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색장이 제반사무를 맡았는데, 1800년도에 흥학당으로 개칭되면서 도유사의 전횡을 막고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입격에 관계없이 나이가 들고 명망이 있는 2명을 강장으로 선출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다고 나이가 적은 2명을 직월로 삼아 이에 따른 제반사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2명의 유사를 따로 두어 재정을 비롯한 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보게 하여 업무를 분장했다고 생각된다.

(2) 齋生의 講學

양사재는 강학활동을 설립의 최대이유로 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접이었다. 함평의 「養士齋興學記」에 “양사재는 一境 章甫의 居接하는 곳이다. 每歲에 한번 모여 賢能 여부를 旣試한다.”라 하여 양사재는 곧 거접의 장소임을 규정하고 있다. 거접의 유래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고려시대의 12徒에서 사찰, 정사를 빌려 夏課를 개설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당과 서원은 물론 향교에서도 널리 행하여 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 향교에서의 강학기능의 상실과 함께 거접의식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양사재의 기문등을 살펴보면 그 주된

설립목적이 거접의 부활에 있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양사재가 행하던 주요 행사는 백일장 및 講會의 設行에 있음을 고려할 때 양사재를 순수 강학처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夏課와 冬課 혹은 4孟朔에 이루어 지는 거접은 후기 향교에서는 거의 폐지되었던 것으로 양사재의 한 주요한 특질을 드러내 준다.²⁰⁾

각 재생의 정원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거창 양현재에는 20명, 흥학당으로 개칭되었을 때는 15명, 삼가 흥학당에는 10명, 김해 양사재에는 15명 등으로 일정치 않다.

거접생들의 자격 및 교육정도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 공부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함평의 경우는 製述 30인, 講經 5인을 정식으로 하여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玉果의 양사재는 20명 내외의 인원을 試取하여 보름 혹은 한달간을 같이 거처하게 하며 科試 등을 준비하였다.

거재생들의 강학에 대해서는 삼가현 흥학재의 규칙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재생이 모이는 날짜는 校宮에서 정하되, 그 날짜를 하루 전날 훈장에게 알려 재생을 모이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훈장이 의복을 갖추고 명륜당에 좌정하면 재생은 의복을 차려입고 나이대로 훈장에게 인사한다. 그 후 재생은 두패로 나누어 相邑禮를 행하고 그 예가 끝나면 각기 자기가 講할 책을 가지고 차례로 훈장에게 나아가 예를 올리고 앉아서 한편을 통독하고 그리고 한번 쓰며, 해가 오전이 되면 거처하는 재실로 물러나 몇줄의 課定을 짓거나 글을 숙독하고 밤 삼경에 이르러 잠이 든다. 의심스러운 것은 별책에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 날 강독·질의에 대비하고 그 다음날도 전일과 같이 반복한다는 것이다.²¹⁾

3. 養士齋의 建築的 構成

3-1. 建立位置에 따른 時期性과 地域性

(1) 建立位置의 分類

양사재는 養士의 목적으로 조선 중기이후부터

18) 「전남의 향교」, 「海南鄕校」, 養士齋案, 1987. p882

19) 「咸平鄕校」, 附條約條, 「전남의 향교」, pp.852~853

20) 정순우, “조선후기 양사재의 성격과 교육활동”,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60

21) 강대민, 전게서, 1992. p196

조선말까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양사재는 어디에 어떻게 건립이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양사재의 건립위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양사재의 건립형태를 보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경주의 경우에는 舊提督館을²²⁾, 의성은 舊醫局을 개축²³⁾하거나 이름을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언양²⁴⁾에서는 여염집을 사들여 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삼가는 사마재의 다른 방을 사용²⁵⁾하고 있어 여러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건립상황에 따른 위치를 향교와 관련하여 분류하면 다음 4가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별도의 위치에 건립하는 경우(이하 '가'형이라 한다)를 들 수가 있는데, 향교내나 근처가 아닌 장소에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거창의 경우는 枕流亭 두 모퉁이 앞에 4,5칸의 집을 지어 이름하여 흥학당이라고 하였는데,²⁶⁾ 침류정의 위치는 瀾川에 자리하고 있으며 향교와는 거리 상 상당히 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는 함경도 함흥에서도 “양사청의 건물은 썩의 서문 밖에 설립된 行錢廳을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향교와는 관련이 없는 장소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원에서는 “府城의 동쪽 庠舍의 서쪽에 땅을 택하였으니 곧 향교의 옛 터였다.”(창원 육영재기)고 하였는데 위치는 당시 향교와는 별개지만 향교의 舊址를 택하여 향교와의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 57개소에서 이 경우가 13곳으로 22.8%이 분포율을 보인다.

둘째, 향교영역내에 건립한 경우(이하 '나'형이라 한다)인데, 이 경우에서의 표현은 두가지로 보여지는데 '향교내'와 '향교근처'로 나타나고 있다. 읍지에서는 대부분의 양사재가 향교와는 떨어져 독립된 건물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在鄕校傍', '在鄕校南', '在鄕校西' 등으로 표시되어 향교와는 근접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향교의 담장에 접하여 건립되었는지 아니면 향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건립되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향교곁에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여 건립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는 향교영역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교내에 건립한 경우는 다음의 예로 알 수 있다. 호남 雲城의 경우 양사재가 향교내에 5칸 규모로 설치되었고²⁷⁾ 沃溝의 경우는 교궁 좌우에 6칸이 세워졌다²⁸⁾는 기록으로 보아 향교 내부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가현의 경우에도 흥학당을 향교의 교궁안에 동재와 가까이 상접하게 하여 설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구부읍지 학교조 “향교에 양사재를 두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다”하여 양사재는 향교내에 두는 것이 관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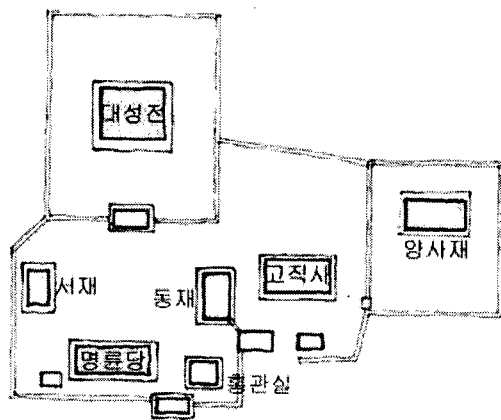


그림 1. 흥덕향교

향교내에 아니지만 동일공간으로 건립하는 경우도 많은데 화순의 경우는 “화순향교 養士齋規”에 의하면 “학궁 곁에 창건하였다”고 하여 향교 옆임을 알 수 있고, 흥덕향교는 호남읍지에 “文廟東”이라 하였는데 실제 양사재는 문묘 동쪽에 붙은 고직사 옆에 건립하여 같은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조사대상 양사재 57개 중 36곳으로 63.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셋째, 다른 곳에 건립하였다가 후에 향교영역내로 옮기는 경우(이하 '다'형이라 한다)이다.

22) 「慶尙道邑誌」(慶州邑事例)

23) 「慶尙道邑誌」(義城邑事例)

24) 「得英齋記」(언양향교, 1900)

25) 「興學堂重修記」(三嘉鄕校, 1826)

26) 「入格儒生經任錄序」, 거창, 흥학당

27) 「湖南邑誌」, “雲城誌”, 文廟條

28) 「湖南邑誌」, “沃溝縣邑誌”, 邑事例

29) 그러나 양사재는 大丘邑誌 의하면 “향교의 東新門밖에 있다”하였다.

지례의 흥학당은 1738년 別建하였다가 1752년 향교 옆에 이건하였고, 金山의 양사당은 1709년에 창건하였는데 1747년에 향교 옆으로 이건하였으며, 김해의 양사재는 1800년에 涵虛亭 舊地에 창건하였다가 1821년에 이건³⁰⁾하였다.

이 유형은 조사대상 양사재 57개 중 7곳으로 12.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넷째, 향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하 '라'형이라 한다)이다.

평안도 곡산군은 - 옛날에 거점한 장소가 향교 뒷동에 있었는데 병란 후(1655) 향교로 옮겨 거점하였다가 乙丑(1685)에 감사 류상운이...鳳鳴서원을 창설한 후 院에 옮겨 거점하였다.³¹⁾ (校院學規) 함경도 鏡城 양사청은 靖北祠 철폐 후 그 건물을 향교서재 남쪽 밖에 설립했다가 광무 5년(1901)에 정복사가 재건되면서 이곳으로 다시 이건하고 있다.³²⁾

경상도의 합천에서는 흥학당이 향교동쪽에 있었는데 1900년경에 이건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에서는 한군데만 이러한 예가 나타나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언급에 따라 4가지 유형을 '별도 건립'과 '향교영역내의 건립'으로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첫 번째 유형은 총 57곳 중 14곳으로 전체의 24.6%이고, 두 번째의 것이 43개소로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어 양사재는 일반적으로 향교영역내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양사재의 출현은 조선 후기 향교에 첨가되어 배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建立 位置에 따른 時期性

양사재의 건립위치가 시기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 문헌들과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표3)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을 토대로 건립 유형별에 따라 시기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살펴보면, '가'형의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발생초기부터 조선말까지 건립연대가 다양하게 나

타나 전 시기에 걸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초기에는 고성, 양산, 밀양에서 보듯이 향교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장소에 건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형은 조사 가능한 기록으로는 1709년 金山을 필두로 시작하여 1800년대까지 건립된다. 다만, 호남지역에서는 연대 파악이 어려워 이 지역에서의 시기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며, 결국 영남지역에 한하여 논할 수밖에 없다. 1700년대를 양사재의 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양사재는 향교와의 밀접한 관련으로 향교영역에 주로 건립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형의 경우는 7곳의 예뿐이고 연대가 파악되는 곳은 5군데뿐이어서 시기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현존하는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17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향교영역 내에 양사재가 건립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향교 내에 건립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이건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합천의 경우로 1900년에 이건되었다. 이러한 경우도 특수한 예외의 것으로 보이는데 향교와 양사재가 완전히 교육기능을 잃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양사재의 건립초기에는 향교의 위치와는 관련이 없는 곳에 건립하다가 17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사재는 향교와의 기능상 유사성과 여러 이유 때문에 향교근처 또는 향교내에 들어오면서 향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따로 건립되었던 일부 양사재가 향교로 이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양사재가 향교의 영역 내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몇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양사재의 설립주체가 지방관이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準官立의 성격을 띠고 있어 향교와 같이 됨으로써 관리면에서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며, 둘째, 양사재가 향교 내에 설치되면 廚舍나 校直舍 등 기존 향교시설을 이용하기가 용이했을 것이다. 셋째, 향교 대성전에서 享祀하는 孔子 등의 先聖과 先士들에 대한 유생들의 교육적 효과가 탁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양사재는 양반들의 주요한 활동장소였던 향교의 기능확대라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향교와 한 공간 안에 있음으로써 해서

30) 경상도 읍지에 의하면 양사재는 신사년(1821)에 北廊外로 이건하였으며, 향교는 영조 경인년(1770)에 北廊外 松岳山下에 이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양사재가 이건한 곳이 향교근처라는 추리가 가능하다.

31) 한국인문과학원편, 「韓國近代叢誌」, 63, 1991. pp177~178

32) 「한국근대읍지」, 57. p65

표 3. 양사재의 설립위치

건립종류		해 당 지 역	
'가'형 (별도건립) (22.8%)	영남	고성(선조조), 밀양(1646), 경산(1668), 통영(1725), 의성(1732), 군위(1753), 청송(1785), 산청(1870), 진주(1900), 웅천, 초계 (11/30 : 36.7%)	
	호남	무안, 임실(2개소/27개중 : 7.4%)	
'나'형 (향교영역내 건립) (63.2%)	영남	영양(1724), 지례(1738), 경주(1744), 의흥(1753), 대구(1766), 함안(1788), 의령(1797경), 창원(1803), 하양(1823), 성주, 안동, 진해, 하동 (13/30 : 43.3%)	
	호남	광주(1698), 고창(1795), 부안(1848), 지도(1903), 고비, 광양, 용안, 장수, 정읍, 흥덕, 태인, 무주, 구례, 무장, 순천, 옥구, 고비, 운봉, 순천, 영암, 함평, 나주, 영광 (23/27 : 85.2%)	
'다'형 (향교영역내로 이건) (12.3%)	영남	김산(1747, 향교옆 이건), 지례(1752, 향교옆 이건), 김해(1821, 향교부근 이건), 삼가(1826, 향교내 이건), 양산(미상, 향교내 이건) (5/30 : 16.7%)	
	호남	함열(1831, 향교옆 이건), 장성(?), 향교내 이건) (2/27 : 7.4%)	
'라'형 (향교에서 다른 곳으로 이건) (1.8%)	영남	합천(1900이건) (1/30 : 3.3%)	
	호남	(0/27 : 0%)	

활동하기에 편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양사재는 향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향교 내 또는 가까운 위치에 건립이 되었을 것이다.

(3) 건립 위치에 따른 지역성

양사재의 건립위치를 앞에서 언급한 유형에 따라 영남과 호남의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위의 표를 토대로 분석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라'형은 유례가 1곳뿐이므로 언급은 생략하였다.

첫째, '가'형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22.8%에 해당하는 13개소가 있는데 이 중 11곳이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뚜렷한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남지역에서도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영남의 30곳 중 36.7%인 11개소로 많이 나타나는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27곳 중 2곳인 7.4%만 이 방법을 택하고 있어 호남지역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나'형은 전체의 63.2%가 이 유형을 취하고 있어 4유형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 분석하면, 영남지역이 이 지역 30개 중 13곳이 이 유형으로 43.3%이며, 호남지역이 27곳 중 23곳으로 85.2%의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남지역에서는 이 유형을 다른 것보다 좀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호남지역에서는 이 유형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 선호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표 4. 향교영역내의 건립 유형

건립유형		해 당 지 역	
향교내 (24.6%)	영남	영양, 성주, 삼가, 양산 (4/18 : 22.2%)	
	호남	고창, 부안, 구례, 무장, 순천, 옥구, 고비, 운봉, 광주, 순천, 영암, 함평, 지도, 장성 (14/25 : 56%)	
향교 담장밖 (75.4%)	영남	영양, 지례, 경주, 의흥, 대구, 함안, 의령, 창원, 하양, 안동, 진해, 하동, 김산, 김해 (14/18 : 77.8%)	
	호남	고비, 광양, 용안, 장수, 정읍, 흥덕, 태인, 무주, 함열, 나주, 영광 (11/25 : 44%)	

그러나 '나'형을 좀더 세분하면 향교내에 건립하는 것과 향교 담장 밖에 건립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영남지역에서는 향교 영역안에 양사재를 두더라도 주로 담장 밖에 두어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호남에서는 반대로 향교 내에 양사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확연한 지역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다'형의 이 건한 경우는 영남이 5곳으로 16.7%이고 호남이 2곳으로 7.4%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영남지역에 별도건립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최종 건축된 상황으로 관별하여 '별도 건립'과 '향교영역내의 건립'으로 크게 두 유형

으로만 분류하였을 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번째의 유형이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어 양사재는 일반적으로 향교영역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별도 건립은 영남에서는 1700년대 초기에는 조사대상 30개 곳 중 16군데인 53.3%가 이 유형을 택해 이 지역에서는 절반이상이었으나 1700년대 중반부터는 5곳이 향교영역으로 이전하여 향교영역내 건립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별도 건립이 원래는 조사대상 27곳 중 4곳으로 14.8%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후 2곳이 향교내로 이전하여 훨씬 낮은 분포를 나타낸다.

결국 영남지역에서는 양사재를 별도로 건립하는 경우와 향교영역 내에 두는 경우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며, 향교영역 내에 두더라도 주로 향교부근이었거나 향교 가까이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향교영역 내에 양사재를 두는 것을 일반적이라 인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향교내에 건립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남에서는 조선후기에도 향교의 교육적 기능이 타도에 비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³³⁾ 양사재가 향교 내에 건립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영남인들 특유의 배타적인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3-2. 空間構成

(1) 建物構成

양사재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들과 이들이 어떻게 배치되었고 향교와는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배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양사재들은 모두 향교 내에 있거나 향교 곁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교영역 내에 존재하는 것을 주 대상으로 하고 문헌에 남아 있는 일부를 첨가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건물의 구성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창원의 옥영재기에서 보듯이 “체제는 명륜당을 모방하고 廚房은 東序에 세워서 음식을 공제하게 했으며, 庫舍는 西序에 세워서 財穀을 저장하게 하였고, 문을 높게 하여 출입하는 곳으로 삼고 담을

둘러 방어하는 한계를 삼았다.”라 하여 향교의 명륜당 체제를 모방하여 양사재를 중심으로 그 앞에 주방과 고사가 서로 마주 보며 侍立한 형태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향교 옆에 건립하여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산 양사재는 “縣人 謀가 私錢 2만냥을 내어 齋舍의 수리를 원하므로 廳과 廚를 설치하고”³⁴⁾라 하여 주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담양에서는 府使 李錫禧가撰한 「秋成誌」에는 양사재에 대하여 “향교부근 松竹林속에 瓦宇 15칸을 세웠다”³⁵⁾ 하였는데 양사재만 15칸으로 보기는 힘들며 다른 부속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양사재에는 일반적으로 본 건물과 주사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부속건물이 있었다. 그러나 양사재가 향교영역에 건립되면서 기존의 향교의 시설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사 역시 향교에 부설된 것을 공유하게 된다. 결국 무주, 태인, 함열 등 일부 향교에서 보듯이 주사와 결합된 공간에서 양사재가 배치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순천의 경우와 같이 양사재 앞에 樓를 두어 휴식하는 장소로 삼았다.

일반적으로는 양사재가 한 棟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능주에서는 東양사재와 西양사재로 구분되어 있어 동양사재는 향교의 동쪽에 두었고 서양사재는 향교의 서쪽에 두어 공간을 달리 하였다. 信川郡의 文會齋 경우에도 蘭亭齋와 廣學齋로 분리되어 2동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옥구향교에서도 교궁 좌우에 6칸이 세워졌다³⁶⁾ 고 한 것으로 보아 2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 건물에 2개 용도를 가진 곳도 있다. 삼가의 흥학당 중수기(1826)에 의하면 “예전에 이 堂을 처음 일으킬 때 같은 堂에 다른 방이 있어서 사마재라 하였는데 지금도 또한 예전과 같이 한다.”고 하였고, 고창에서도 한 건물에 사마재와 양사재를 같이 두어 두 기능을 가진 곳도 있다.

또한 양사재 공간에 흥덕향교의 사마재 중수기에 의하면 “동은 사마재, 서는 양사재”라 하여 한 공간에 두 기능을 가진 곳도 있다. 영광향교 校宮圖에도 흥덕향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양사재의 건물구성은 일정한 규범이 있

34) 尙德綱 「重修記」, 1852

35) 「全南의 鄕校」, p368에서 재인용

36) 「湖南邑誌」, “沃溝縣邑誌”, 邑事例

33)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 400년사」, 1998. p156

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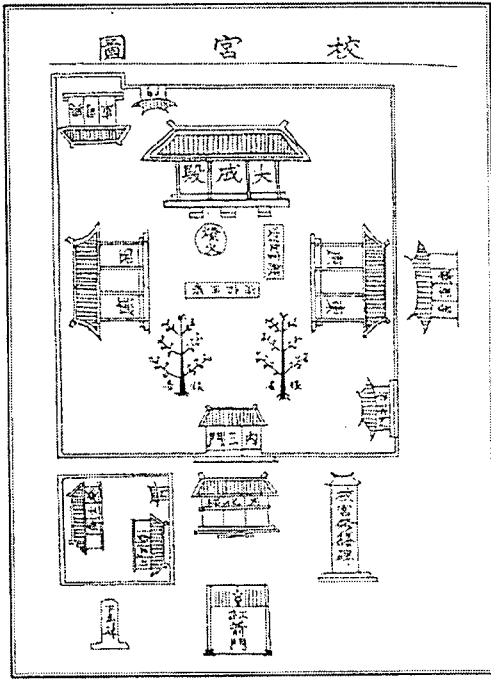


그림 2. 영광향교

(2) 建立位置에 따른 空間分析

향교영역내에 건립된 현존하는 양사재를 대상으로 향교내의 어느 영역에 건립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향교영역내에 건립된 양사재의 공간구성구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향교 강학공간 내에 건립하여 강학공간의 일부로 속하게 하는 것과 강학공간 밖에 건립하여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첫째, 강학공간의 일부로 속하는 것은 지도, 장성, 함평, 영암, 고비, 운봉의 경우인데 명륜당영역을 통하여 출입한다. 위치는 명륜당 옆에 두는 경우(함평, 영암, 장성)와 西齋 근처에 두는 경우(운봉, 지도, 함평)도 있다.

이 유형의 공간적 특징은 강학공간내에 양사재가 설치됨으로써 명륜당과 대성전에 이르는 동선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고 명륜당과의 기능상 유사한 점 때문에 공간사용상 유리한 점은 있다. 그러나 양사재와 명륜당의 동서재에 거접하는 학생들의 신분상의 차이 또는 나이상의 차이 등에서 같은 공간의 공유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또한 공부

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사람들이 출입함으로 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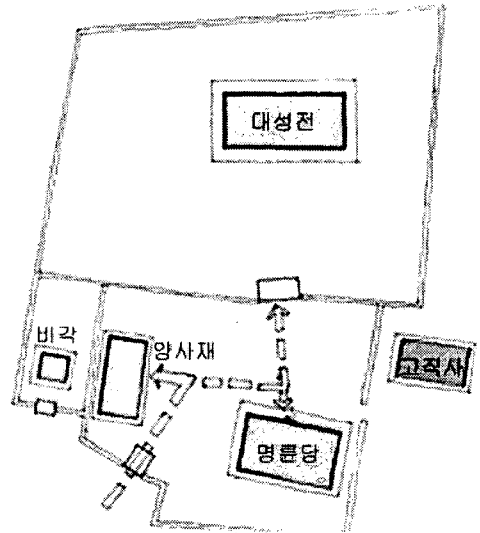


그림 3. 지도향교

둘째, 강학공간 밖에 건립하여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는 무주, 태인, 함열, 단양, 부여, 청주, 하동, 홍덕, 고창, 순천에서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을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담장을 시설하여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담장을 두진 않았지만 향교영역 내에 위치하면서 강학구역과는 떨어져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前者의 경우는 무주, 태인, 함열, 단양, 부여향교에서 보듯이 담장으로 계획된 양사재 공간 내에 향교 관리사를 같이 두고 있으며, 주출입은 별도로 두고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는 부출입구를 시설하고 있다. 그러나 홍덕이나 정읍에서는 관리사를 공간내에 두지는 않고 양사재만 건립하는 경우도 있다. 나주향교에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1900년경에 훼손되고 말았다. 이러한 유형의 공간적 구성은 정읍과 영광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향교의 좌·우 측면에 배치를 시키고 있다. 이 공간구성의 특징은 공간의 분리가 확연하여 각 공간의 독립성을 잘 살릴 수 있고 외부에서의 출입이 용이하다. 특히 측면배치의 경우, 명륜당공간(강학공간)과 대성전공간(제향공간)과의 동선이 짧아 연결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읍과 영광에서는 향교의

前面에 배치하였는데 특히 이들 향교는 前廟後學의 배치방식을 취하고 있어 강학공간까지의 연결은 동선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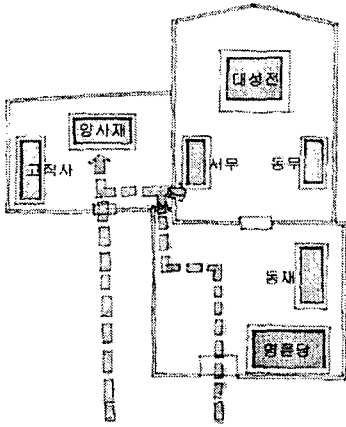


그림 4. 무주향교

後者 경우에 해당하는 하동, 고창, 운봉, 순천에서는 강학공간의 좌측에 담장으로 분리되진 않았지만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중간정도 지점의 좌측면에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출입은 순천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강학공간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였다. 특히 순천에서는 양사재 앞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풍화루를 건립하여 색다른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의 공간구성상 특징은 공간의 분리가 확연하여 각 공간의 독립성을 잘 살릴 수 있으며, 명륜당공간과 대성전공간과의 연결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외부에서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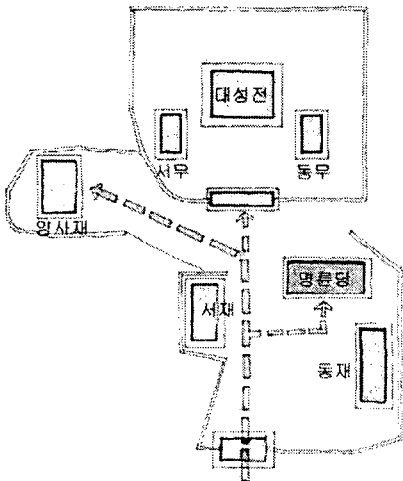


그림 5. 하동향교

圖全校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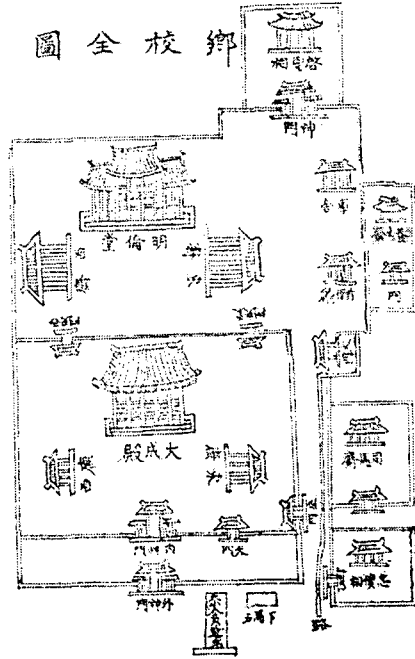


그림 6. 나주향교

3-3. 平面 및 지붕형식

(1) 平面形式

양사재의 건축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평면형식을 살펴야 한다. 평면의 구성은 정면칸수와 측면칸수를 살펴보아야 하나 현존하는 양사재의 수가 많지 않는 관계로 과거의 기록에서 보완을 하였다.

雲城의 경우 양사재가 향교내에 5칸 규모로 설치되었고³⁷⁾ 옥구의 경우는 교궁 좌우에 6칸이 세워졌다³⁸⁾하였으며, 거창의 경우는 “침류정 두 모퉁이 앞에 4,5칸이 집을 지어 이름하여 홍학당이라고 하였다”³⁹⁾ 대구의 양사재도 “삼칸의 부서진 집이 이에 능히 아름답게 고쳐 지어졌다.”⁴⁰⁾는 기록으로 보아 일정한 양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으며, 각 고을의 형편에 따라 규모가 정하여진 것 같다.

또한 현존하는 양사재를 조사한 결과 성주 양현청이 2칸 규모로 가장 작고, 순천의 양사재가 5칸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대부분이 3~4칸 규모

37) 『湖南邑誌』, “雲城誌”, 文廟條

38) 『湖南邑誌』, “沃溝縣邑誌”, 邑事例.

39) 『入格儒生經任錄序』, 거창, 홍학당

40) 『大丘邑誌』, 養士齋 上樑文

표 5. 현존 양사재의 규모

정면	측면	해당 지역
2칸	1칸	성주
3칸	1.5칸	지도, 운봉
	2칸	함평, 고창
	2.5칸	하동
4칸	1.5칸	함열, 옥구, 정읍, 고비, 태인
	2칸	홍덕, 영암
	2.5칸	무주
5칸	2칸	순천

로 건축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칸수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이다.

다음은 평면형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양사재의 일반적인 평면구성은 온돌방과 마루로 구성된다. 평면형식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청위주의 형식과 온돌방 위주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청위주의 평면형식은 가운데 대청을 두고 양 옆에 방을 둔 형식이 대부분이나 용담 양사재는 정면 3칸 중 2칸방을 한쪽에만 설치한 偏房型으로 유일한 예이다. 3칸형의 경우는 대청의 규모가 1칸이지만, 4칸형은 대청을 1칸 또는 2칸을 시설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평면의 모습이 달라진다. 즉, 대청을 2칸으로 하면 양 옆에 1칸 온돌방을 두지만, 대청을 1칸으로 하면 온돌방이 한쪽은 2칸, 한쪽은 1칸이 놓이게 된다. 주로 대청을 2칸 규모를 두지만, 무주의 양사재는 1칸 대청을 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온돌방 위주의 평면형식은 대청을 두지 않고 주로 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단지 방 앞에 툇마루를 시설한 것이 평면상의 특징이다. 정면의 규모는 2칸에서 4칸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성주, 하동, 지도의 양사재는 방 전면에 반칸의 툇마루를 두고 있으며, 함열의 양사재는 정면 4칸 중 가운데 2칸만 방 전면에 반칸의 툇마루를 시설하고 양 옆의 방은 1.5칸의 통칸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영암의 양사재는 4칸 중 좌측 3칸 앞에 툇마루를 시설하고, 우측 끝방은 2통칸 온돌방을 두었다.

양사재의 평면유형은 주로 향교의 명륜당과 동·서재의 평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은 강론을 위한 대청위주의 평면계획에 양쪽(中堂夾室型) 또는 한쪽(偏房型)에 방을 두는 평

표 6. 대청위주형 양사재










정면 칸수	평면형태	대상 양사재
3칸		운봉, 고창, 함평
		용담
4칸		정읍, 태인, 옥구, 홍덕
		무주
5칸		순천

표 7. 온돌방위주형 양사재

정면 칸수	평면형태	대상 양사재
2칸		성주
3칸		하동, 지도
4칸		함열
		영암

면구성인데 반해, 동·서재는 유생들의 기숙을 위해 온돌을 둔 방을 위주로 계획되었으며, 향교의

다른 어느 건물보다 평면형식이 다양하게 계획된 것으로 볼 때 규범적인 성격이 약한 기능위주의 평면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사재에서 대청위주의 평면구성은 명륜당의 평면구성과 유사하며, 온돌방위주의 구성은 동서재의 평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 유형의 비율은 조사대상 15개 양사재 중 10개소가 대청위주로 건축되었고, 나머지 5개소가 온돌방 위주로 건축되어서 전자의 유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사재는 유생들이 기숙을 하며 공부를 하던 곳으로 기능상 동서재와 유사한 평면을 가져야 하나, 명륜당의 평면형식을 선호하는 것은 조선 후기 양사재가 향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붕형식

양사재의 지붕은 팔작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사재의 지붕은 명륜당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데, 팔작지붕을 가진 곳에서는 모두 명륜당이 팔작을 취하고 있으며, 순천과 성주에서 나타나듯이 맞배지붕 명륜당을 가진 향교에서는 양사재에서도 같은 형태의 지붕을 취하고 있어 그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지붕형식

지붕형태	대상 양사재
팔작	함열, 옥구, 무주, 영암, 함평, 지도, 흥덕
맞배	순천, 성주
우진각	태인

4. 結論

조선 중기 이래 養士齋라는 새로운 교육의 場을 마련되어 사마재와 함께 조선 후기 향교의 교육기능 상실이라는 현실속에서 그 대안으로 나타나 전국 각지에 설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후기 양사재의 건립시기, 지역적 차이 및 건축적 특징들을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립상황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 4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별도의 위치에 건립하는 경우로 13곳으

로 22.8%이 분포율을 보인다.

둘째, 향교영역내에 건립한 경우로 이 유형은 조사대상 양사재 57개 중 36곳으로 63.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셋째, 다른 곳에 건립하였다가 후에 향교영역내로 옮기는 경우가

넷째, 향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다.

2. 건립 상황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양사재의 건립초기에는 향교의 위치와는 관련이 없는 곳에 건립하다가 17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사재는 향교와의 기능상 유사성과 여러 이유 때문에 향교근처 또는 향교내에 들어오면서 향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따로 건립되었던 일부 양사재가 향교로 이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3. 건립위치에 따른 지역성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에서는 양사재를 별도로 건립하는 경우와 향교영역 내에 두는 경우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며, 향교영역 내에 두더라도 주로 향교부근이었거나 향교 가까이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향교영역 내에 양사재를 두는 것을 일반적이라 인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향교내에 건립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다.

4. 양사재의 건축적 특성중 평면상의 특징은, 가장 선호하는 칸수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이다. 평면의 구성수법은 명륜당 평면과 유사한 '대청위주형'과 동서재의 평면과 유사한 '온돌방위주형'으로 대별되는데, 이러한 두 유형의 비율은 조사대상 15개 양사재 중 10개소가 대청위주형으로 건축되었고, 나머지 5개소가 온돌방 위주형으로 건축되어서 전자의 유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양사재가 향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양사재의 지붕은 팔작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사재의 지붕은 명륜당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湖南邑誌」
2. 「嶺南邑誌」
3. 각 鄉校誌 및 記文

4. 「全南의 鄉校」, 전라남도, 1987
5. 김봉렬·신재역, 「慶南의 鄉校建築」, 울산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 1991
6. 「慶北鄉校誌」, 경상북도·영남대학교, 1991
7. 「慶尙監營 400年史」, 대구시 중구, 1998
8. 姜大敏, 「韓國의 鄉校研究」, 경성대 출판부, 1992.
9. 尹熙勉,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0
10. 「釜山慶南鄉校記文」, 부산산업대학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86
11. 박양희, 「한국의 향교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
12. 趙泳鉢, “鄉校建築의 樓에 관한 研究”, 영남대 박사논문, 1994
13. 朴元錫, “조선후기 양사재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14. 윤희면, “조선후기 양사재”, 「이원순박사 화갑기념논총」, 1986
15. 강대민, “北道地方의 養士機構에 관한 小考”,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6. 尹熙勉, “養士齋의 設立과 運營實態”,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7. 丁淳佑, “朝鮮後期 養士齋의 性格과 教育活動”,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8. 鄭震英, “朝鮮後期 養士齋의 性格”,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9. 정만조, “조선후기의 향촌교학 진흥론에 대한 검토 - 지방관의 흥학책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10, 1987
20. 장인진,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한문학연구」, 18, 계명한문학연구회, 199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Yang-Sa-Jae Architecture in the Late Chosun Dynasty

- Focusing on Youngnam and Honam province -

Cho, Young-Wha
(Professor, Taekyung College)

ABSTRACT

As the educational function of Confucian school in the late Chosun dynasty had been declined, the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called YANGSAJAE was established. The founders of the institution was either local authorities or local Confucianists. Otherwise the institution was established by the cooperation of both local authorities and local Confucianists.

YANGSAJAE began to be established from the 16th century. Most of them was founded in 1700s. In 1800s, it was not so difficult to see YANGSAJAE in many towns in Youngnam and Honam provinces.

The institution was located in separate places at the early stage of foundation. But since the middle of 1700s, the institution was located in or near the Confucian school. As a consequence, this influenced the location of Confucian schools in the late Chosun dynasty.

In Youngnam province, the institution was mainly located near the Confucian school or in a separate place. On the contrary, most of the institution were constructed within Confucian school in Honam province.

There were two types of the flat composition: one is based on hall and the other is based on room. The hall type, which had a hall in the middle and rooms in both sides, was general. The hall type usually had a size of 4-kan in width and 1.5-kan in length.

The half-hipped roof was the general type and intimately related to the roof of Myung-Ryun Dang of local Confucian School.